



# 아까시, 천덕꾸러기 아닌 효자나무

속성수 연구실장 농학박사  
구영본 임업연구원

요즘 곳곳에서 아까시나무의 꽃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고 있다. 아까시나무의 하얀 꽃송이가 눈을 즐겁게 한다.

아까시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숙한 나무이고, 매년 5월이면 남쪽으로부터 꽃망울을 터뜨려 산하를 화려하게 수놓지만 우리에게 썩 좋은 인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 '일제(日帝)가 우리 국토를 망가뜨리기 위해 도입한 식물' 등의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과연 아까시나무는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천덕꾸러기' 일까.

## ‘아카시아’는 다른 나무

아까시나무는 1900년대 말 중국 상하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아까시나무를 보통 아카시아라고 부르지만 ‘아카시아(acacia)’는 열대 지방에 자라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학명상 아까시나무가 맞다. 아까시나무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방(砂防) 수종으로 험벗은 국토 녹화에 크게 기여했고, 떨나무가 없던 시절에 연료 수종으로도 기여한 바가 크다. 전국 마을 주변과 야산 어디에서나 아까시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까시나무는 우리 국민 정서상 좋지 못한 나무, 쓸모없는 나무, 즉 잡목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필자의 생각으로 이 나무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도입되어 식재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근맹아(뿌리에서 새순이 자라는 것) 생장이 대단히 왕성하여 주변의 묘지나 농지로 맹렬히 뺏어 나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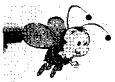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은 조상숭배 사상이 대단히 강한 민족으로 묘지 주변에 식재된 아까시나무의 뿌리가 무덤으로까지 뻗어 여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를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과 직면해 정서상 아까시나무를 가까이 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또 하나는 강한 신토불이(身土不二) 사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수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까시나무는 잡목이 아니라 경제적·환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무이다. 우선 목재로서의 이용가치가 높다. 아까시나무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난 수종이다. 단 섬유길이가 짧고 표백성이 불량하여 펄프 용재로는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까시나무는 과거에 주로 나무 수레바퀴 혹은 개울의 다리로 이용되었다. 단단하고 무거우며 조직이 치밀한 데다 강인하면서 탄력성이 뛰어난 특성 때문이다. 반대로 건조시 잘 갈라지고 못을 받지 않는 등 재질상 문제점 때문에 기구자루, 돛대, 침목, 탄광의 갱목, 연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온 측면도 있다.

## 학교·주택용 마루판·가구에도 이용

하지만 아까시나무는 현대에 들어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아름다운 색상과 무늬, 부식에 견디는 힘이 강할 뿐더러 강도(強度)도 일반 목재에 비하여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시나무는 학교나 주택용 마루판과 외부 계단재,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도침목, 차량상판재, 가구재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특히 헝가리에서는 아까시나무를 건축재로 이용한 견본 건축물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까시나무는 밀원(蜜源?꿀) 수종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크게 돋보인다. 1998년 우리나라 전국 꿀 생산량이 약 8000t인데 그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6000여t이 아까시 꿀이었다. 이는 연간 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가소득에서 송이버섯보다 더 중요한 소득원이다. 아까시 꿀은 향기가 좋고 색깔이 맑으며, 잡꿀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꿀이라는 점에서 품질이 우수한 경제성 있는 꿀에 속한다.

아까시 꿀 생산 기간은 매년 기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꽃이 피는 시기인 한반도 남쪽의 5월 초~중순에 시작하여 약 한 달 간 계속된다. 한 장소에서의 채집 기간은 약 일주일로 꽃피는 시기가 빠른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약 한 달 간에 걸쳐 꿀 채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꿀 생산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기 위하여 꿀 생산량이 많고 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품종 개발 작업도 한창 이뤄지고 있다.

## 폐광·황무지 조림에 최고

아까시나무는 이밖에 환경수로서 가치도 크다. 아까시나무는 척박한 토양 등 어디에서나 적응력이 강하고 포플러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빨리 자라는 수종이다. 또 아까시나무는 공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환경이 파괴된 지역에 다른 나무보다 먼저 뻗어 들어가 자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 험벗은 국토 녹화(綠化)에는 무엇보다 유용한 나무인 것이다. 실제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수종 중에 낙엽송과 잣나무 다음으로 많이 식재된 수종이다.

이러한 아까시나무의 장점은 요즘 들어 환경 정화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과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역 등을 조림할 경우 아까시나무야말로 무엇보다 적합한 수종이다. 이들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아까시나무를 식재하면

빠른 기간 내 녹화되어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오염물질도 흡수 제거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까시나무는 또 각종 환경오염으로 야기된 도심 주변 산성비의 산성을 완화시켜주는 탁월한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까시나무 임지에서는 토양의 산성화가 방지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시나무는 앞에서 언급한 몇가지 정서적 편견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수종이다. 아까시나무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산하가 쓸모없는 아까시나무로 뒤덮여 간다고 걱정하지만, 아까시나무는 건전한 식생이 형성된 참나무림 혹은 소나무림에서는 쇠퇴하여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황폐지 혹은 척박지 등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아까시나무가 번성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점보다는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히려 아까시나무의 자원적인 가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무의 밀원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만 용재적 가치는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것이라도 우리 기후와 입지에 잘 적응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종은 배타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 즉 곡물, 채소, 원예 및 과수 등이 우리나라 토종보다는 주로 외국에서 도입되어 국내에 잘 적응된 종들인데 외국 수종이라고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간조선 2003. 6. 5 일자 1756호 66p~67p 게재)

